

무안, 닭·오리 사육거리 제한 강화 논란

10가구 이상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1000m로

축산인 반대 우려 소·돼지 제외… 연합청년회 등 반발

무안군이 갑자기 닭과 오리 등 가축 거리 제한을 강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 제정과 시행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18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가축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까지 1000m 이내에 닭과 오리 사육을 제한하는 ‘개정 가축거리 제한 조례’를 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거리제한은 500m로, 규정을 크게 강화한 셈이다. 다만 지역축산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소, 돼지 등은 제외됐다.

무안지역은 소 3만8000마리, 돼지 22만 마리, 오리 70만 마리, 닭 43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전라남도 축산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축산 능가가 산재해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를 적용할 경우 오리, 닭 관련 신규 생산시설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은 군의 규제 강화와 관련해 무안군 연합청년회와 청년회 등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의견 청취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군과 군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제정·공고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기존 축산시설 증축과 귀농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 민원이 증가하고 무안지역 축산업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무안군 연합청년회 관계자는 “시장 개방과 사료 값 상승, 소값 폭락으로 농가들이 소나 돼지에 비해 출하 기간이 짧은 오리나 양계업으로 바꾸고 있는 와중에 조례를 개정했다”며 “지역 농민들의 사정은 전혀 모르고 책상머리에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무안군은 지역환경을 쾌적하게 하

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점차 대규모화 돼가는 가축사육 시설 악취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닭과 오리 사육에 대한 거리제한 조례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축 거리 제한에 대한 정부지침은 소·돼지 500m, ,닭·오리 300m로, 각 지자체가 이를 초과해 지정이 가능하다. 전남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500~700m로 규정하고 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양파 가격 ‘물리코스터’

무안·함평 등 재고량 급증

내년 봄 가격 폭락 불보듯

무안, 함평 등 전남 서부권의 대표적 농산물 중 하나인 양파가 재고량 급증 등으로 가격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올 봄에는 재고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등 한 해 걸러 물리코스터 장세가 우려돼 재배농민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18일 무안군과 일선 농협 등에 따르면 지역내 양파 재고량은 2만8600여t으로, 수매량 4만5600여t의 63%에 달하고 있다. 이는 농협과 대형 유통업자 등이 지난 5~6월 수매한 양파 가운데 60% 이상을 소진하지 못하고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는 말이다. 수매가에다 보관비 등을 감안할 때 ‘팔면 손해’라는 생각 때문에 출하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월 평년 재고 수준이 25~30%인 점을 고려하면 60%대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도 재고량이 40%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전국적인 양파 재고량도 지난해 대비, 24%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됐다. 무안지역 한 농협 관계자는 “현실성 떨어진 양파 수급 매뉴얼에 따라 결국 재고량이 넘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는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고 농가가 희생되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지역 양파 재배면적은 모두 7714ha로 전국의 52%를 차지한다. 무안 2734ha, 신안 1180ha, 해남 958ha, 함평 857ha, 고흥 535ha 등 순이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목포시 공공근로자들이 18일 오전 동절기 종합대책에 따라 주요 가로수를 짚으로 싸고 있다. 시는 에너지 빈곤가구 및 노후시설물 조사 후 조치. <목포시 제공>

전북

정읍시립박물관, 야외 유적공원 조성

삼국시대 토기가마터 등 이전 복원

정읍시립박물관이 야외에 유적공원을 만들어 관내 주요 유적을 이전 복원했다. 18일 정읍시립박물관에 따르면 최근 시가지에 있던 고인돌을 박물관 야외 유적공원으로 이전해 복원한 것을 끝으로 유적공원 조성을 마무리했다. 유적공원에 복원 전시된 유적은 지난해 6월 시립박물관 개관 전후 정읍에서 발굴된 문화 유적이다. 시립박물관은 개관 전부터 사업시행자, 발굴 조사기관, 지도위원, 문화재청 관계자들을 설득해 발굴된 유적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와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박물관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 대부분 반영했다. 유적공원에 이전 복원된 주요 유물은 삼국시대 토기가마터 4기, 조선시대 기와가마 4기, 자기가마 7기, 옹기가마 3기, 숯가마 4기 등 모두 21기의 가마와 숯가마 2기, 삼가마 1기 등이다. 특히 길이 6.4m의 삼국시대 토기가마터에서는 유개호, 개배, 뚜껑, 발형토기 등 삼국시대 토기편이 출토됐는데 보존상태가 양호해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태인오폭농공단지 사업부지에서 발견된 청서리 백제시대 굴식 돌방무덤 1기도 백제시대 무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다. 널방(墓室)의 평면형태는 긴 네모(장방형) 모양이며, 널방의 오른쪽에는 죽은 사람을 안치하기 위한 통로를 만들었다. 또한 일암면 접지리 호남고속도로 공사 구간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 고인돌군(7기)과 신석기시대의 불탄 자리 유구와 청동기시대 마제 석검 및 신석기시대 빗살무늬 토기편도 이전 복원됐다. 이밖에 시가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 고인돌은 기동 형태의 받침돌을 4개 놓고 그 위에 덮



전주 한옥마을을 깨끗하게 정리한 한옥마을을 문화정체 작가들이 지난 17일 전주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에서 쓰레기 줍기와 화단 정리 등 환경정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30여명으로 구성된 문화정체 작가들은 매주 토·일요일 한옥마을에서 환경정비 활동은 물론 마을 설명 등 홍보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정읍시립박물관의 야외 유적공원 전경.

개돌을 올려놓은 주형지석(柱形支石) 고인돌이다. 시립박물관측은 박물관내 정읍역사실에 150여점의 출토유물을 상설 전시해 전시와 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읍=박기성기자 parks@

순창 꾸지뽕 장류제품 개발 가시화

김명곤 전북대 교수팀 연구 결과 주목

순창 꾸지뽕을 활용한 장류제품 개발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18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꾸지뽕을 활용한 고기능 장류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돼 산업적 주목을 끌었다. 이번 연구는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선행연구과제로 전북대 김명곤 교수팀에서 수행했다. 연구팀은 기존의 당절임 형태의 첨가방법에서 탈피한 전일염 염장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장류에 최적인 꾸지뽕 식품소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순창 꾸지뽕 염장 추출물의 경우 항산화 활성 효과와 혈압강하 효과(ACE 저해활성)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장류(고추장, 된장)에

적용시 맛에 영향을 주는 유리아미노산 및 핵산 함량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며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Rutein)함량이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꾸지뽕은 순창군에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향토자원으로 농민들에게 고수익을 줄 수 있는 작목”이라며 “향후 꾸지뽕 장류제품이 출시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면 꾸지뽕 재배면적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순창군은 앞으로 꾸지뽕과 같이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고기능 발효제품 개발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해 농가들에게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연안 침식 심각성 알리자

오늘 신안 증도서 심포지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 침식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1004개의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이 연안 침식의 심각성을 알리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군은 18일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해안지역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침식의 심각성을 알리고 현재와 미래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19일(오늘) 증도 옐도라도 리조트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내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 약 100명이 모여 훼손된 연안 복원 및 효율적 관리를 논의하게 된다. 바다와 육지를 연결해주는 연안지역은 습지, 갯벌, 사구 등의 형태이며, 생물 다양성과 경제 생

산가치가 높아 최근 그 존재 가치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4년 연안침식 대응을 위한 투자 강화 및 연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800억원의 기반 구축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연안개발 관리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연안 침식 현상이 빈발하고 있으며, 이는 열악한 재정의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호소해 연안지역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의 해안선은 1780km로 전국 해안선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영광찰보리, 中 시장 진출 나섰다

새암푸드먼트, 상하이박람회 참가

최근 한류열풍을 타고 한국 식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영광찰보리명품화사업단 소속 기업인 (주)새암푸드먼트가 중국 시장 진출에 나섰다. 18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찰보리명품화사업단은 전라남도 및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와 공동으로 지난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중국 상해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했다. 전문 바이어들이 주로 찾는 이번

박람회는 중국 최대 식품박람회로, 올해로 17회째를 맞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70개국 1500개 업체가 참가하고 3만여명의 바이어가 찾았다. 전남지역에서는 (주)새암푸드먼트 등 7개 업체가 참가해 찰보리 식재 및 과자, 주류, 한과 등 다양한 식품으로 눈길을 끌었다. (주)새암푸드먼트는 이번 박람회에서 중화권 식품 유통업체인 상해성한식품유한공사 외 3개 업체와 찰보리 과자, 식혜품목으로 모두 80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단 신

복분자, 혈중지질 개선·혈관 확장 효과적

복분자가 대사증후군에서 혈중지질을 개선하고, 혈관 확장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 임상실험에서 밝혀졌다. (재)고창복분자연구소는 18일 “지난 14일 2013년도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심포지엄에서 홍순준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와 문재학 전남대 교수 등이 각각 ‘복분자의 혈중 콜레스테롤

및 혈관 내피세포 기능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복분자와 복분자 외인에 함유된 화합물질의 기능학적 특징’에 대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혈중지질 개선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전반에 걸쳐서도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남원,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지원사업 성과

남원시의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연매출 5억원 미만의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시설 현대화와 위생시설 및 장비 구축 등의 비용 가운데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3년간 13개 업체가 11억원의 지원

을 받았으며, 2010년 사업대상업체들의 경우 매출액이 지난 2009년 19억원에서 지난해 52억원으로 큰 신장세를 나타냈다. 시는 내년도도 4개 업체에 대해 1억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남원=백성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자원봉사센터, 희망의 김장담그기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는 지난 15·16일 고창여성회관에서 4대 종단과 함께 희망의 김장을 담갔다. 이날 배추 1600포기로 김치를 담아 관내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375세대에 전달했다. 이번 김장행사는 (사)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가 주최하고, 고창군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했으며, 대한불교 조계종 선운사, 고창성당, 원불교 고창지구, 고창중앙교회 등 4대 종단과 새마을부녀회가 참여했다. 천년회, 고인돌봉사단, 가족봉사단 등 관내 봉사단체도 동참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전주, 도시재생 선도지역 용역 추진

국토부가 내년부터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243억원을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 전주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 효과가 큰 지역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요청으로 지정해 예산과 인력을

우선 지원하는 지역을 말한다. 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기반으로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의 협의 체계를 구축해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의 거점적 역할을 수행할 전략계획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